

고1  
공통국어1  
천재(김종철)

2026 고1 공통국어1 천재(김종철) | 1(2) 문학 소통과 매체 기술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상 출제 유형

「선우사」는 의인화, 색채 이미지, 반복법 등의 표현 방법을 통해 ‘욕심 없고 고결한 삶에 대한 지향’이라는 주제를 전달하는 시입니다. 따라서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와 시구와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 주제 의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시에서 화자가 ‘흰밥’과 ‘가자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맥락을 고려한 문학 작품 감상을 학습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작가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독자 맥락, 문학사적 맥락 등의 감상 방법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매체 자료와 관련해서는 매체 소통의 특성을 묻는 문제, 매체 자료를 만드는 과정을 묻는 문제, 매체를 활용한 소통의 주의할 점을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매체 자료와 매체 소통의 특성 및 주의할 점을 꼼꼼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ㄱ 낚은 나조반에 흰밥도 가자미도 나도 나와  
[A] 앉아서  
ㄴ ① 쓸쓸한 저녁을 맞는다

ㄷ 흰밥과 가자미와 나는  
우리들은 그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  
[B] 다  
우리들은 서로 미덥고 정답고 그리고 서로  
ㄹ 좋구나

우리들은 맑은 물 밑 해정한 모래톱에서  
하고긴 날을 모래알만 헤이며 잔뼈가 굵은  
탓이다  
바람 좋은 한 벌판에서 물닭이 소리를 들  
으며 단이슬 먹고 나이 들은 탓이다  
외따른 산골에서 소리개 소리 배우며 다람  
[C] 쥐 동무하고 자라난 탓이다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 희어졌다  
착하다착해서 세과슨 가시 하나 손아귀 하  
나 없다

너무나 정갈해서 이렇게 파리했다

ㄱ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D] 우리들은 외로워할 까닭도 없다  
ㄴ 그리고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다

ㄷ 흰밥과 가자미와 나는  
[E] 우리들이 같이 있으면  
ㄹ 세상 같은 건 밖에 나도 좋을 것 같다  
- 백석, 「선우사」

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과 인간의 대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대상과의 교감을 통해 인간관계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여 삶의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④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물아일체의 경지를 설명하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현재의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2.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는 ‘나’와 ‘흰밥’, ‘가자미’가 함께하는 쓸쓸한 저녁의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 ② [B]에서는 ‘우리들’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감정이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③ [C]에서는 ‘우리들’의 과거 내력을 소개하고 공통점을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 표현하고 있다.
- ④ [D]에서 화자가 ‘흰밥’, ‘가자미’와 함께 있을 때



**【8~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냇은 나조반에 ㉠흰밥도 가자미도 나도 나와 앉아서

쓸쓸한 저녁을 맞는다

흰밥과 가자미와 나는

우리들은 그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다

우리들은 서로 미덥고 정답고 그리고 서로 좋구나

우리들은 맑은 물 밑 ㉡해정한 모래톱에서 하고긴  
날을 모래알만 헤이며 잔뼈가 굵은 탓이다

바람 좋은 한 벌판에서 ㉢물닭이 소리를 들으며  
단이슬 먹고 나이 들은 탓이다

외따른 산골에서 ㉣소리개 소리 배우며 다람쥐 동  
무하고 자라난 탓이다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 희어졌다

착하디착해서 세과슨 가시 하나 손아귀 하나 없다  
너무나 정갈해서 이렇게 파리했다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우리들은 외로워할 까닭도 없다

그리고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다

㉤흰밥과 가자미와 나는

우리들이 같이 있으면

세상 같은 건 밖에 나도 좋을 것 같다

— 백석, 「선우사」

**8.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시에서 풍족하게 자라났다.
- ② 어린 시절 가족과의 추억을 회상하고 있다.
- ③ 흰밥과 가자미를 먹는 것을 지겨워하고 있다.
- ④ 반찬에게 말을 걸어 자신의 부정적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 ⑤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욕심 없고 고결한 삶에 대해 지향하고 있다.

**9.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승 이미지를 활용하여 재생과 부활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깨끗하고 순수한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담담한 어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이질적인 대상을 ‘우리들’로 부르며 가깝게 여기고 있다.
- ⑤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10. <보기>를 이 시와 연결 지어 읽은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흰밥과 가자미는 함경도 지역의 식단에서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먹을거리다. 함흥은 함경도에서 거의 유일하게 평야를 확보하고 있는 지역으로 쌀을 생산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집에서는 백미를 주식으로 삼을 수 있었고 한때 해역에서 많이 잡히는 가자미가 식단에 자주 올랐다. 가자미를 주재료로 한 가자미식해가 함경도의 토속 음식이 된 것도 그 때문이다.

- ① 가희: 독자들이 함경도의 토속 음식을 좋아했기 때문에 시적 대상으로 삼았구나.
- ② 나희: 시인이 벼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흰밥을 시적 대상으로 삼았구나.
- ③ 다희: 시인이 동해 가까운 거리에 살아서 그 지역의 주요 먹을거리를 시적 대상으로 삼았구나.
- ④ 라희: 문학사의 흐름에서 흰밥과 가자미는 의미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시적 대상으로 삼았구나.
- ⑤ 마희: 일제 강점기 당시 먹을거리가 백미와 가자미밖에 없었구나.

11. <보기>는 백석의 시에 관한 여러 문인의 평가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고향을 찾은 느낌에 기쁘고 반갑고 마음이 뛰놀았다.  
- 이효석

해득하기 어려운 약간의 어휘를 그냥 포함한 채로 그 전체를 감미(鑑味)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모어(母語)의 위대한 힘을 깨닫게 된다.  
- 박용철

백석 시인은 소박한 토속 음식에 관한 각종 사례들을 낱낱이 열거, 제시함으로써 한국인의 정체성 자각과 보존 의식에 자극을 주고자 했던 것이다.  
- 이동순

- ① ㉠: 풍족한 우리네 밥상을 통해 과거의 우리 민족의 넉넉한 인심을 드러내고 있군.
- ② ㉡: 세련된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군.
- ③ ㉢: 도시의 소재를 활용하여 시골과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군.
- ④ ㉣: 익숙한 자연물을 통해 세태에 대해 비판하고 있군.
- ⑤ ㉣: 소박한 토속 음식을 제시하여 한국인의 정체성을 자각시키고자 했군.

12. 이 시의 각 연에 대한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보기>

ㄱ. 흰밥과 가자미와 함께하는 쓸쓸한 저녁  
ㄴ. 서로에 대한 정감과 세상과의 거리감  
ㄷ. 욕심 없고 착하고 정갈한 흰밥과 가자미와 '나'  
ㄹ. 가난해도 서럽거나 외롭지 않고 누구도

부럽지 않은 '우리들'

ㄱ. 서로 미덥고 정다우며 좋은 흰밥과 가자미와 '나'

ㄴ. 흰밥과 가자미와 '나'가 서로 미덥고 정다우며 좋은 이유

- ① ㄱ-ㄴ-ㄷ-ㄹ-ㄱ-ㄴ-ㄹ
- ② ㄱ-ㄷ-ㄹ-ㄱ-ㄴ-ㄹ
- ③ ㄱ-ㄴ-ㄷ-ㄷ-ㄹ-ㄴ
- ④ ㄱ-ㄷ-ㄴ-ㄹ-ㄱ-ㄴ
- ⑤ ㄱ-ㄴ-ㄷ-ㄴ-ㄷ-ㄹ

13. 이 시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실제 지역명을 사용하여 향토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색채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이질적 대상들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 ④ 과장법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각 행의 길이를 비슷하게 하여 시의 구조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14.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낯은 나조반'을 화자의 처지와 대조하고 있다.
- ② 현실에 타협하지 못하고 현실을 극복하고자 고뇌하고 있다.
- ③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며 욕심 없고 고결한 삶을 꿈꾸고 있다.
- ④ 긍정적 의미의 시어를 나열하여 자연 친화적 삶의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⑤ 역설적 상황을 설정하여 세상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를 합리화하고 있다.

15. 다음은 이 시를 읽은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적절한 설명을 한 학생은?

- ① 성훈: 이 시에서 ‘우리들’은 하얗고, 욕심이 없구나.
- ② 원준: 맞아. 어둡고 부정적인 환경에서 자랐지.
- ③ 단비: 셋 다 하얗고 잔뼈가 굵다는 공통점도 있어.
- ④ 주영: 전부 파리할 정도로 하얗서 금방 사라질 존재이기도 하지.
- ⑤ 상현: ‘우리들’은 함께 할수록 외로워지는 것 같아.

다고 한다. 나는 어서 그때가 와서 우리들 흰밥과 고추장과 다 만나서 아침저녁 기뻐하게 되기만 기다린다.

- ① 흰밥과 가자미가 고추장과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 ② 흰밥과 가자미를 오랜만에 먹었기 때문이다.
- ③ 흰밥과 가자미를 다른 지역에서는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 ④ 흰밥과 가자미를 직접 수확하고 잡았기 때문이다.
- ⑤ 흰밥과 가자미가 시인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이다.

16. 이 시를 감상하고 비평하기 위해 제시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가의 가치관과 작품의 관계를 더 살펴봐야겠어.
- ② 이 시가 한국 문학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봐야겠어.
- ③ 이 시가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수집해야겠어.
- ④ 일상적 소재로 비관적인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다른 나라의 시를 조사해 봐야겠어.
- ⑤ 작품이 수용된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작품의 관계를 살펴봐야겠어.

17. <보기>는 이 시의 시인이 쓴 수필의 일부이다. 이를 참고할 때, 시인이 ‘흰밥’과 ‘가자미’를 소재로 삼아 시를 쓴 까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동해 가까운 거리로 와서 나는 가자미와 가장 친하다. (중략) 그저 한없이 착하고 정다운 가자미만이 흰밥과 빨간 고추장과 함께 가난하고 쓸쓸한 내 상에 한 끼도 빠지지 않고 오른다. (중략) 그동안 나는 한 달포 이 고을을 떠났다 와서 오랜만에 내 가자미를 찾아 생선장으로 갔더니 섭섭하게도 이 물선은 보이지 않았다. 음력 팔월 초승이 되어서야 이 내 친한 것이 온

##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③

이 시에서는 ‘흰밥’과 ‘가자미’라는 일상적 소재를 활용해 ‘욕심을 초월한 소박한 삶을 지향’이라는 삶의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① 이 시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대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
- ② 이 시에서는 대상과의 교감을 통해 인간관계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④ 이 시에서는 ‘흰밥’과 ‘가자미’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물아일체의 경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 ⑤ 이 시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의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2. 정답 ②

[B]에는 ‘우리들’에 대해 ‘미덥고 정답고 그리고 서로 좋구나’라고 ‘나’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A]에는 ‘나’와 ‘흰밥’, ‘가자미’가 낡은 나조반을 중심으로 함께하는 쓸쓸한 저녁을 맞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C]에서는 ‘가자미’, ‘흰밥’, ‘나’의 과거 내력을 소개하고 정갈하다는 공통점을 ‘희어졌다’라는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D]에서 화자가 ‘흰밥’, ‘가자미’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충족감을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다’라는 시구를 통해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E]에서 화자는 ‘우리들이 같이 있으면 / 세상 같은 건 밖에 나도 좋을 것 같다’에서 ‘세상’에 대한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3. 정답 ③

‘흰밥’과 ‘가자미’는 상식적 차원에서는 서로 이질적인 것들로 계층적 지배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흰밥’과 ‘가자미’로 차려진 저녁상은 작가가 일상적으로 맞이하는 시적 상황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로 적절하다.

- ② ‘나’와 ‘흰밥’, ‘가자미’가 ‘이야기’를 나눈다는 설정은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을 사용하여 표현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 ④ 작가는 서로 이질적인 ‘나’, ‘흰밥’, ‘가자미’에서 ‘희다’라는 색채 이미지를 통해 ‘착하고 정갈하다’는 동질성을 찾아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작가는 ‘정갈하다’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나’와 ‘흰밥’, ‘가자미’가 계층적 지배 관계에서 수평적인 동류 관계로 전환하게 됨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4. 정답 ①

이 시에서는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 희어졌다’,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등의 구절에서 ‘우리들은’, ‘~다’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이 시는 색채 이미지를 대비하고 있지 않다.
- ③ 이 시는 규칙적으로 시행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
- ④ 이 시는 시행이 명사로 끝나고 있지 않다.
- ⑤ 이 시는 대상의 속성을 점층적으로 나열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다.

### 5. 정답 ④

- ㄱ, ㄴ. 4연에서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 ‘너무나 정갈해서’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ㄷ. 5연에서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따라서 ㄱ, ㄴ, ㄷ이 묶인 ④가 정답이다.
- ㄹ. 5연에서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6. 정답 ④

- ㉠은 ‘흰밥’과 ‘가자미’와 함께하는 화자의 저녁 풍경을 묘사한 것으로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① 세태에 대한 비판 의식이 함축되어 있지 않다.
- ② 세상사에서 소외된 서러움이 함축되어 있지 않다.
- ③ 세상사의 변화에서 느끼는 무상감이 함축되어 있지 않다.
- ⑤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내적 고뇌를 드러내

고 있지 않다.

7. [정답] ④

5연에서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가난하지만 만족을 느끼며 고결한 삶을 지향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가난하고 외로운 삶을 벗어나고자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1연에서 '나'가 '흰밥', '가자미'와 함께하는 쓸쓸한 저녁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2연은 '나'와 '흰밥', '가자미'를 '우리들'로 부름으로써 정서적 친근감을 나타내고, '미덥고 정답고 서로 좋구나'라고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3연에서 '가자미'가 '모래톱'에서, '흰밥'이 '벌판'에서, '나'가 '산골'에서 겪은 과거 내력을 보여주어, 4연에서 '정갈하다'는 특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6연에서는 '세상 같은 건 밖에 나도 좋을 것 같다'라는 시행을 통해 부정적 세상에 대한 거리감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8. [정답] ⑤

5연에서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 우리들은 외로워할 까닭도 없다 / 그리고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다'라고 말하며 가난하지만 만족을 느끼며 욕심 없고 고결한 삶에 대해 지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① 3연에서 '외따른 산골에서 소리개 소리 배우며 다람쥐 동무하고 자라난 탓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이 시의 화자는 어린 시절 가족과의 추억을 회상하고 있지 않다.
- ③ 이 시의 화자는 흰밥과 가자미를 '우리들'이라고 말하며 정서적 친근감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이 시의 화자는 반찬에게 말을 걸어 자신의 부정적 처지를 한탄하고 있지 않다.

9. [정답] ①

이 시에는 상승 이미지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4연의 '욕심이 없어 희어졌다'라는 부분에서 색채어의 활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이 시는 '-다'의 담담한 어조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화자는 '나', 흰밥, 가자미라는 서로 다른 대상을 '우리들'이라고 부르며 이질적인 대상을 가깝고 친근감을 느끼는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5연에서 '우리들은 ~ 않다', '우리들은 ~ 없다'라고 하며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10. [정답] ③

<보기>는 시와 관련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언급하는 글로, 이를 바탕으로 흰밥과 가자미가 시인의 식탁에 자주 올라올 수 있는 친숙한 음식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① <보기>를 통해서는 당시 독자들이 함경도의 토속 음식을 좋아했는지 알 수 없다.
- ② <보기>를 통해서는 시인이 벼농사를 지었는지 알 수 없다.
- ④ <보기>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관한 것이지만 문학사적 맥락에 관한 것이 아니다.
- ⑤ <보기>를 통해서는 일제 강점기 당시 먹을거리가 백미와 가자미밖에 없었는지 알 수 없다.

11. [정답] ⑤

㉠의 '흰밥'과 '가자미'를 소박한 토속 음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동순의 평가를 뒷글에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⑤는 적절하다.

- ① 흰밥은 가난하고 쓸쓸한 시인의 밥상에 오르는 평범한 음식이므로 풍족한 우리네 밥상을 통해 과거의 우리 민족의 넉넉한 인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보기>와 상반되는 해석이며, '해정한'을 세련된 시어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도시의 소재를 활용하여 시골과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익숙한 자연물을 통해 세태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 않다.

12. [정답] ③

1연은 흰밥과 가자미와 함께하는 쓸쓸한 저녁(ㄱ)

2연은 서로 미덥고 정다우며 좋은 흰밥과 가자미와 '나'(ㄴ)

3연은 흰밥과 가자미와 '나'가 서로 미덥고 정다우며 좋은 이유(ㄴ)

4연은 욕심 없고 착하고 정갈한 흰밥과 가자미와 '나'(ㄷ)

5연은 가난해도 서럽거나 외롭지 않고 누구도 부럽지 않은 '우리들'(ㄹ)

6연은 서로에 대한 정감과 세상과의 거리감(ㄴ)으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ㄱ-ㄴ-ㄴ-ㄷ-ㄹ-ㄴ의 순서로 제시된 ③이 정답이다.

①, ②, ④, ⑤는 적절하지 않다.

13. 정답 ②

4연에서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 희어졌다'라는 구절에서 흰색의 색채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깨끗하고 순수한 특성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이 시는 실제 지역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③ '흰밥', '가자미'와 같은 이질적 대상들에 대해 정서적 친근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이 시는 과장법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이 시는 각 행의 길이를 비슷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4. 정답 ③

이 시의 화자는 세상에 대한 거리감을 드러내며 지금 상황에 만족하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볼 때 욕심 없고 고결한 삶을 꿈꾸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① 이 시에서는 낯은 '나조반'을 화자의 처지와 대조하고 있지 않다.

② 이 시에서 화자는 현실에 타협하지 못하고 현실을 극복하고자 고뇌하고 있지 않다.

④ 이 시에서 긍정적 의미의 시어를 나열하여 자연 친화적 삶의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⑤ 이 시에서 역설적 상황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15. 정답 ①

'우리들'은 각각 흰밥, 가자미, '나'로, 모두 물 밑, 벌판, 산골 등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자랐고 하얗고

욕심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② 셋 다 맑고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랐다.

③ 셋 다 하얀 것은 맞지만, 잔뼈가 굵다는 특징은 가자미만 해당한다.

④ 전부 파리할 정도로 하얀 것은 맞지만, 금방 사라질 존재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우리들'은 함께 하면 외로워할 까닭도 없다고 하였다.

16. 정답 ④

이 시의 주요 소재인 '흰밥'과 '가자미'는 일상적인 소재는 맞지만, 화자의 비관적 태도를 드러내지 않으므로 이 시를 둘러싼 맥락과 큰 관련이 없다.

① 작가 맥락에서 작품을 감상한 것이다.

② 문학사적 맥락에서 작품을 감상한 것이다.

③ 독자 맥락에서 작품을 감상한 것이다.

⑤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작품을 감상한 것이다.

17. 정답 ⑤

<보기>를 통해 '가난하고 쓸쓸한' 시인을 흰밥, 가자미, 고추장이 달래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⑤이다.

① 흰밥과 가자미가 고추장과 가장 잘 어울리는지는 <보기>에 나와 있지 않다.

② 흰밥과 가자미는 내 상에 한 끼도 빠지지 않고 오른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이 고을을 떠났을 때 오랜만에 가자미를 찾아갔다고 하였으나 흰밥을 다른 지역에서는 먹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흰밥과 가자미를 직접 수확하고 잡았다는 내용은 <보기>에 나와 있지 않다.